

명품(名品) 단열재 ‘가람이엔지’



▲ 충남 아산에 위치한 가람이엔지 본사(예일빌 202호)



▲ 김진철 대표

국내 기사를 살펴보면 우레탄 또는 스티로폼을 거의 사용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계사의 부식과 쥐, 벌레 등으로 단열재 내외부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람이엔지(대표 김진철)는 최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우수한 품질의 우레탄으로 계사의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단열기능, 방수·방습·방서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농가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우수제품상과 2015 전국양계인대회에서 대한양계협회장상을 수상하면서 제품의 품질을 또 다시 인정받았다. 이번호에는 고품질 우레탄으로 단열재를 생산하는 가람이엔지를 소개코자 한다.

친환경 단열재 전문 업체 ‘가람이엔지’

1998년 중부 우레탄이란 이름으로 축산업에 첫 발을 디딘 가람이엔지는 2011년 가람이엔지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다. 가람이엔지는 친환경 단열재를 개발 및 공급, 시공하는 전문회사로 준불연폼, 난연폼(ECO-Label 인증), 경질폼, 슈퍼우레아 코팅 제품 등을 개발하여 수 많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급 및 시공함으로써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음으로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인받았다. 또한,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해외로의 수출로 회사의 발전과 미래상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수출을 성공하였으며 독일 B사에 준 불연폼 공급 및 시공자이다.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등 수출협상을 진행중이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김 대표는 “농가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하고 축사 환경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여 축사의 형태에 구분 없이 만족 할 수 있는 제품 공급 및 시공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에서 최고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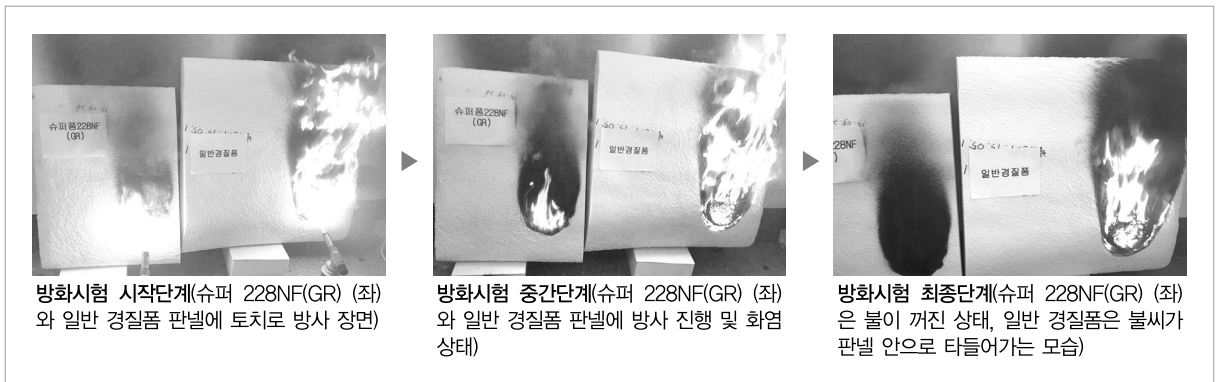
레탄회사로 발전시키고 축산 농가에 더욱 기여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열재와 방수재로 계사 개선

슈퍼폼 228NF(GR)는 화재예방에 중점을 둔 강난연 PU Spray Foam System이면서도 기존



▲ 가람이엔지 생산 및 시공 제품



방화시험 시작단계(슈퍼 228NF(GR) (좌)와 일반 경질폼 패널에 토치로 방사 장면)

방화시험 중간단계(슈퍼 228NF(GR) (좌)와 일반 경질폼 패널에 방사 진행 및 화염 상태)

방화시험 최종단계(슈퍼 228NF(GR) (좌)은 불이 꺼진 상태, 일반 경질폼은 불씨가 패널 안으로 타들어가는 모습)

▲ 슈퍼 228NF(GR)는 화재예방에 최대한 중점을 둔 강난연 PU 스프레이폼이면서 기존 난연 스프레이폼 제품의 문제점이었던 현장 작성성 및 시공성을 일반 스프레이폼 수준까지 끌어올린 시공 친화적인 제품



▲ 슈퍼 228NF(GR) 시공 모습



▲ 슈퍼 우레아 시공 모습

품질검사 성적서

발행일자: 2015년 10월 26일
 발주처: 가람이엔지 (주)
 시공처: 가람이엔지 (주)
 검사대상: 슈퍼 228NF(GR) 시공물

구분	시험항목	시험결과	비고
1. 물리	밀도	1.02	1.02
	기밀성	0.00	0.00
2. 화학	가연성	불가연	불가연
	산성/알칼리성	중성	중성
3. 환경	중금속	검출 안됨	검출 안됨
	유기용매용량	0.00	0.00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 품질검사 성적서

환경표지 인증서

제 14213 호

- 상 품 명: 슈퍼 228NF(GR)
- 사 용 처: 가람이엔지 (주)
- 사 용 품 목: 방수·방습·방서성
- 제 조 처: 가람이엔지 (주)
- 제 조 품 목: 방수·방습·방서성
- 제 조 기 구: 가람이엔지 (주)
- 제 조 기 구: 가람이엔지 (주)
- 제 조 기 구: 가람이엔지 (주)
- 제 조 기 구: 가람이엔지 (주)
- 제 조 기 구: 가람이엔지 (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표지 인증서

난연 Spray Foam System제품의 문제점이었던 현장 작업성 및 시공성을 일반 Spray Foam 수준

까지 끌어 올린 시공 친화적인 강난연 제품이다. 특히, 외관상 난연성은 일반 Foam과 AF-300을 동시에 토치로 태웠을 때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한 친환경 제품이며 자소성(자기소화성), 밀도(기밀성)가 높아 균열이 없다. 이음매 없는 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다.

또한, 슈퍼 우레아는 단열 및 화재예방은 기본이며 방수·방습·방서성이 탁월해 결로 및 부식 방지에 그 효과가 우수하다. 한번 코팅으로 영구



▲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우수제품상을 수상한 김진철 대표(좌)



▲ 2015 전국양계인대회서 대한양계협회장상을 수상한 김진철 대표(우)

적으로 코팅제제가 유지되며 계사 내외부 쥐와 벌레로 인한 우레탄 부식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바닥에 도포를 했다면 1시간 이내 차량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초속 경화형이며 계절 및 온도, 습도에 영향이 적어 시공성이 우수하다. 친환경 무독성으로 인장강도와 인열강도가 강하며 내마모성, 내약품성 제품이다.

기술혁신, 성실시공, 고객신뢰

불량 저질 우레탄 제품으로 시공한 양계장에서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가람이엔지는 저질 우레탄 제품을 대체할 계사 맞춤형 슈퍼 우레탄 공급으로 고객과 신뢰를 쌓고 있으며 2인 1조 5팀이 주말도 반납한 채 성실히 시공하여 농가 불만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슈퍼 228NF(GR) 개발과 슈퍼 우레아 코팅 등 신제품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한 제품 개발로 벌써

차기신제품 개발을 마쳤으며 또 다시 성능향상과 기술혁신으로 연구개발에 몰두 하고 있다. 또한, 더욱 원활한 우레탄 공급을 위해 올해 안 공장 및 물류창고를 신축 및 완공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기존 저급 우레탄에서 탈피한 축사 환경에 맞는 제품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고밀도 친환경, 난연성 제품으로 축산 농가의 미래 비전에 맞게 맞춤형 우레탄을 개발 및 공급, 시공하고 있다. 신제품(친환경 난연폼, 친환경 슈퍼우레아 코팅) 위주로 많은 문의와 시공으로 회사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축, 개축 축사에는 반듯이 필요한 제품으로 인식하고 문의와 상담이 많다. 지금 저렴한 가격이나 누구의 추천이라 해서 선택 후 후회하기 보다는 면밀한 비교 검토 후 우레탄만이라도 정확한 공사로 후대까지 물려 줄 수 있는 계사를 만 들어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취재 | 최인환 기자
enani85@naver.com

